

DMZ 비경, 북녘 땅이 눈앞에 ... 임진강 3색 순례길 열렸다



지난해 5월 경기 파주 율곡습지공원 인근 '평화누리길'을 따라 걷기 행사 참가자들이 걷고 있다. 지난 27일 'DMZ 자전거투어'가 열린 파주 민통선내 'DMZ 자전거길'(오른쪽 위)과 민통선내 임진나루 인근 생태탐방로(오른쪽 아래). [사진 경기관광공사]

철책 따라 걷는 생태탐방로 9.1km
 철새 도래지, 400m 주상절리 장관
 반구정~율곡습지 평화누리길 연계
 내달 30일 전면 개방 기념 걷기대회
 민통선 안 17km 왕복 자전거길도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임진강 주변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가 안보 관광을 겸해 생태탐방, 트레킹·하이킹을 즐기는 '명품길'로 각광받고 있다. 임진강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DMZ(비무장지대) 자전거길이 그곳이다.

생태탐방로는 임진각~통일대교~초평도 전망대~임진나루 전망대~율곡습지공원을 잇는 9.1km. 이곳은 군사 보안 문제로 1971년 민통선 내에 포함됐다. 경기도와 파주시는 육군 1사단과 협약을 맺고 그동안 23억원을 들여 폭 1m 정도의 군 순찰로를 1.5~3m로 넓히고 보도블록 등을 깔아 올해 초부터 일반에 본격 개방했다. 탐방로에는 전망대 4곳과 습터·화장실·난간 등이 갖춰져 있다. 이길재 경기도 DMZ정책담당관은 "두쿠마·독수리·가창오리 등 겨울 철새가 활동하는 '초평도' 등 임진강 비경이 눈앞에 보인다"고 했다. 주변 강가에는 검은 현무암 기둥이 잇달아 절벽을 이룬 높이 10여 m, 폭 400m의 주상절리가 장관을 이루고 있다.

개방은 매주 수~일요일(월·화·법정공휴일 휴무) 5일간 이뤄진다. 경기관광공사는 해설사를 배치해 50명의 나눠 하루 150명 이내로 탐방 코스를 안내한다. '평화누리길'은 김포~고양~파주~연천을 잇는 184km 구간에 2010년 개설했다. 논·옥·밭·강·갈·오솔길·산길 등 자연 상태를 살려 테마별 걷기 코스를 만든 게 특징이다. 파주를 지나는 4개 코스(총 6km) 가운데 반구정~장산전망대~화석정~율곡습지공원(13km)간 평화누리길 8코스가 생태탐방로와 연결돼 있다. 이재홍 파주시장은 "철책선 주변을 따라 뻗어 있는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은 분단 현장을 체험하고 임진강의 비경을 감상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파주시·경기관광공사는 생태탐방로 전면 개방을 기념해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생태탐방로와 평화누리길 8코스를 연계해 다음달 30일 '2016 평화누리길 걷기 행사'를 연다. 율곡습지공원~생태탐방로~장산전망대~화석정~율곡습지공원(9km) 구간에서 열린다. 참가비는 1인당 1만5000원이며, 등산스틱 세트가 기념품으로 지급된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31일 오전 10시부터 평화누리길 걷기행사 공식 홈페이지(www.walkyourdmz.com)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전거를 타고 임진강 주변 민통선 일대를 돌아보는 'DMZ 자전거길'도 배낭을 수

없다. 임진각을 출발해 통일대교~군내산거리~초평도 주변 등 총 17.2km를 왕복하는 게 기본 코스다. 초급자는 임진각에서 초평도 인근 64봉까지 왕복 14km를 선택해 달릴 수도 있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7일을 시작으로 4월 24일, 5월 22일, 9월 25일, 10월 23일 등 올해 총 5차례 DMZ 자전거 투어를 개최한다. 모든 투어는 넷째주 일요일 오후 1시에 시작된다. 홍재원 경기관광공사 차장은 "2010년 시작된 DMZ 자전거 투어는 옛 모습 그대로 보존돼 있는 임진강 주변과 민통선 지역의 자연 생태계를 감상하면서 생생한 안보 현장도 둘러보는 국내 유일의 행사"라고 했다.

‘경기도 DMZ포럼’ 개방형 플랫폼 운영 추진

도홈피 구축... 논의 사항 공개

경기도가 올해 DMZ 포럼 참여자의 확대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개방형 플랫폼’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2016년 제1차 경기도 DMZ 포럼’에서 올 한해동안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포럼의 참여기반 확대 ▶정보 공유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등을 주요 운영방향으로 설정했다.

참여기반 확대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DMZ 포럼 홈페이지(dmz.gg.go.kr/dmz-forum)를 이달부터 구축·운영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DMZ 포럼에서 논의됐던 사항을 공개하고, 관심있는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의견 및 정책제안

등을 수렴하게 된다.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다양하게 이뤄진다. 우선 오는 5월에 제2차 DMZ 포럼을 국제 환경회의인 ‘생태계서비스 아시아 총회(Asian ESP Conference)’와 연계해 개최한다. 또 유러피언 그린 벨트(European Green Belt), 유엔 사막화방지 협약(UNCCD),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IPBES) 등 각종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강화·구축함은 물론, 국내외 이해 당사자의 참여기반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윤성기자

17.0 X 6.1 cm

DMZ 포럼 방향 '정보교류 활성화'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 시민의견 정책 반영키로

경기도가 29일 올해 첫 DMZ 포럼을 열고 정보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포럼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북부청사 2층 회의실에서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여한 '2016년 1차 경기도 DMZ 포럼'을 열고 이 같은 포럼 운영방향을 정했다.

DMZ 포럼은 도가 2009년 비무지대(DMZ)의 보전과 합리적 이용방안을 모색하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한 것으로, 각계 전문가, 도와 시·군 담당자 등으로 구성됐다.

문화관광, 지역개발, 생태환경 등 3개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도는 올해부터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포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DMZ 포럼 홈페이지

지(<http://dmz.gg.go.kr/dmz-forum>)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홈페이지는 그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개하고 다양한 의견도 받는 공간으로 활용한다.

국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활동도 한다.

오는 5월 안산 한양대 캠퍼스에서 개최 예정인 2차 DMZ 포럼을 국제 환경회의 '생태계서비스 아시아 총회'(Asian ESP Conference)와 연계한다.

또 유러피언 그린벨트(European Green Belt), 유엔 사막화 방지협약(UNCCD), 생물 다양성 과학기구(IPBES) 등 각종 국제기구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상준 기자 sikang15@incheonilbo.com